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1년 10월 뉴스레터 vol. 47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채우고 비우고

창례후기

채비가 만난 사람들

숫자로 보는 채비

채비플랜 후기

영원한 삶

어린이를 높이 받드는 세상

어머니와 헤어지는 마지막 길

서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공부법

죽기 전에 잘했다 생각할만 한 일, '건강 유지'

"체계적이고 깔끔하고 품격이 있는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영원한 삶



최근 우연치 않게 웰다잉 강의를 두어 번 하게 되었다.

사진을 통해 아버지와 화해했던 개인적 체험을 소재로 강의를 했는데, ‘조문객이 몇 명이나 올까, 화환은 몇 개나 올까 하고 노심초사하거나, 그저 남의 이목 때문에 코로나로 텅 빈 빈소를 쓸쓸히 지키는 장례식을 더 이상 치르지 말자. 대신 살아서 소통하고 화해하며 이를 사진이나 글로 기록하여 추모가 있는 장례식을 치르자. 기억과 기록으로 우리 마음에 돌아가신 분을 남기자’는 요지였다.

강의 중에도 많은 분이 공감을 표시하며 즉석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추모가 깃든 ‘채비장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다. 뿌듯하고 기뻐다.

이런 활동과 기분이 전해졌을까? 오랜만에 조합원 한 분이 소식을 전해왔다.

이 분은 남편 사별 후 홀로 힘들게 키운 자녀 중 따님을 먼저 보낸 슬픔으로 우울증에 빠졌다가 극복하고 지금은 노년을 아주 활기차게 보내고 계시다. 이번에 본인의 유지를 동영상으로 아들에게 남기면서 촬영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랬다.

“산 사람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장례식으로 무리하지 않길 바란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길 바란다.

죽음을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내 장례식이 축제였으면 좋겠다.

그간 내 슬픔만 큰 줄 알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려 했구나.

(운이 좋아) 스스로 위로를 만들어 슬픔과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누구나 (스스로 슬픔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믿는다.

이제 ‘감지덕지’ 네 글자가 써진다. 나의 생명이 살아있음에 대해 매일 감사한다.”

영상에서 시를 한편 소개하였는데 내용이 참 좋아 시인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으나 검색되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찾았는데 이름이 틀렸고 내용도 일부 어색해서 영어 원문과 대조해 누락된 문장이나 틀린 곳을 수정했다. 이런 내용을 조합원과 주거니 받거니 하고 또 수정한 내용을 보내드리며 휴일을 보냈다.

오늘 같은 날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내가 이 조합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기쁘다.

나이, 성별, 직업을 떠나 좋은 분들을 만나 삶의 마지막 과정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성찰을 나누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사업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이러 저런 생각이 깊어져 산책하러 나오니 하루 사이에 가을이 부쩍 깊어졌다. 거리에 낙엽이 수북하다. 낙엽이 져서 쓸쓸하지만 그간 뿌린 것을 거두어 나눌 수 있으니 풍성하기도 하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때를 성실하게 예비하는 삶이 되길 바라며 이 시를 다시 읽어본다.*

김상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https://youtu.be/yBnWMVps8lo>

*박문자 조합원이 보내온 영상 원본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로버트 노엘 테스트 (1926-1994)

언젠가 나의 몸이, 삶과 죽음으로 분주한 병원 한구석
 흰 시트가 깨끗이 깔린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의사가 나의 뇌가 기능을 멈추었으며
 모든 측면에서 내 생명이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의 생명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연장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부디 나의 침상이 죽은 사람의 것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풍성한 생명의 침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평생 한 번도 동트는 아침을 보지 못하고
 아기 얼굴도, 사랑하는 이의 빛나는 눈동자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의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끝없는 가슴의 통증을 경험하는 자에게
 나의 심장을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젊은이에게 나의 피를 주어
 그가 먼 훗날 손자들의 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매주 혈액 투석기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내 신장을 주십시오.
 나의 뼈와 근육과 신경을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걷게 하는데 써주십시오.
 내 뇌를 취해 구석구석 연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세포도 다 떼내어 잘 배양한 뒤
 언젠가 언어장애 소년이 야구장에서 합성을 지를 수 있게,
 청각장애 소녀가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은 모두 불태워 재가 되게 하여
 들꽃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바람에 날려 보내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꼭 매장할 것이 있어야 한다면
 나의 실수와 연약함, 동료들에게 가졌던 편견들을 묻어 주십시오.
 내 죄를 악마에게 주며
 내 영혼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혹시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친절하고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의 모든 것을 지켜 주신다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높이 받드는 세상



오늘은 어린이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동안 주로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써왔는데, 그 반대방향(?)에도 눈을 돌려보려 한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고 시간의 연속이다. 우리는 어린이로부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

마침 다가오는 2022년은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또 그 이듬해는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1923년 5월 1일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으로 보자는 최초의 선언이자 어린이가 스스로 당당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어른들의 다짐이다. 이 선언에 담긴 정신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인류 발전을 위해서라도 깊이 살펴 실천해야 할 가치가 있다. 지금 돌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선진적이며 개명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의 흐름은 변화를, 보통은 긍정의 변화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과학기술이 그러했고, 문화와 정치 모두 발전하고 개선돼 왔다. 그런데 어린이 인권은 어떠한가?

최근 계속되는 아동 학대 사건과 어린이 안전사고를 보면 정말 나아진 것일까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그리고 100년 전 선언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 오히려 퇴보했다는 확신마저 갖게 된다.”

평생을 현장에서 참교육을 실천해온 이주영 선생의 말씀이다.

선생의 말씀처럼 오늘의 현실은 100년 전에 비해 얼마나 달라지고 나아졌나.

지금이야말로 ‘어린이 해방선언’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또한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구상하는 기본 지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1919년 3·1혁명 직후 어린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방정환과 어린이 해방 운동가들의 ‘어린이 해방선언’은 21세기 우리 겨레뿐 아니라 지구촌 인류가 기억하고 살려 나가야 할 나침반이다. 100년 전 선각자들의 어투로 소리 내어 읽어보자.

어린이 해방선언

-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 어린이를 갖가히 하사 자조 이야기하여 주시오
-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 잠 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 산보나 원족 가튼 것을 각금각금 식혀주시오
- 어린이를 책망할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 어린이들이 서로 모히어 질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관 가튼 것을 지어주시오
-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절름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즉 어린이 그들에게만 잇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내가 크게 잘못 살아왔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내 자식을 어떻게 대했는가. 남의 자식은 또 어떻게 대했는가. 내 일터의 후배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했는가.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해졌는가. 인간 이외 자연이나 생명은 또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알고 남은 모르는 일이 수두룩하다.

부끄럽다. 나도, 내 또래도, 내 선배들도 그다지 본받을 만한 어른은 못되었던 것 같다.

평생 반성하며 살자.

작고 여리고 힘없는 존재에게는 군림하고 강하고 화려하고 힘 있는 자에게는 굴종한다. 지금 세태가 그렇다.

어린이를 높이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다. 가장 낮은 것을 높이면 그 위의 것은 저절로 높아진다. 낮고 약한 것을 짓밟기 시작하면 중국에는 나도 짓밟힌다.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그리 어렵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나이 먹은 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그들은 천년을 살 것 처럼 호령하지만 사실 머지않아 다 떠날 운명이다.

어린이는 항상 한 세대의 미래이자 주인공이다. 귀히 여기고 받들어 마땅하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어머니와 헤어지는 마지막 길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을 이루는 조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들어 병들고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무척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6개월 전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이 닥치자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리 메모해둔 전화번호로 박태호 실장님께 연락드렸고 몇 시간 뒤 장례식장인 영등포병원에서 한지윤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한지윤 팀장님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사흘동안 모든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수목장을 마치고 영등포병원으로 돌아와 헤어지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지나서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지윤 팀장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와 제 동생 부부, 제 두 아들과 조카가 이구동성으로 한지윤 팀장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지윤 팀장님 덕분에 어머니와 영원히 헤어지는 마지막 길이 조금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지윤 팀장님과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고맙습니다. ✨

성한용 | 조합원

서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공부법

김익한 조합원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조합원이자 유튜브 채널 ‘김 교수의 세 가지’를 운영해온 김익한 교수(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가 ‘아이캔유튜브대학(iCanU)’을 개설했다.

이 온라인 대학은 ‘나 다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자기성장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간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더욱 심도 있고 체계화한 것이다.

김 교수는 25년 가까이 강단에서 기록학을 가르치고 있다.

기록, 기억, 정리, 요약, 자기화, 생각의 이음 등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튜브 채널 ‘김 교수의 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계기로, 진짜 공부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자기계발’ 네트워크를 꿈꾸게 되었다.

“자기계발, 자기성장을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성장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잘되지 않아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성장과 자기돌봄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함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계적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아이캔유(iCanU)는 이 두 가지를 위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아이캔유는 서로 연결하고 차곡차곡 방법을 익히는 자유로운 공부법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각자의 가능성을 활짝 피어나게 하는 공부를 꿈꾼다. 지식의 평동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아이캔유는 지혜와 슬기를 상징하는 코끼리를 심볼로 삼았다.

아이캔유는 자기성장의 기초근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년 4학기제로 운영되는데, 매 학기마다 ‘공부법’과 ‘독서와 글쓰기’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1학기 입문·기초, 2학기 실행·심화, 3학기 체화·확정, 4학기 종합·완성으로 짜여 있다. 매 학기에 기록법, 집중법, 습관화 방법, 책 읽는 법, 글 쓰는 법을 병행하며 두 권의 책을 읽고 요약과 쪽글 쓰기를 연습한다.

김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4학기를 모두 마치면 자기다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초근력이 몸에 붙을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이 유튜브대학을 통해 자기다운 삶을 멋지게 개척해가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한다. 또한 “지속의 힘, 함께 ‘으샤으샤’ 하는 힘으로, 의지와 노력보다는 루틴과 즐거움으로, 우리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참여와 응원이 필요하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아이캔유튜브대학



아이캔유튜브대학과 함께해요

자기계발, 자기성장을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성장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성장과 자기돌봄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 합니다.
하나는 함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계적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iCanU는 이 두 가지를 위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iCanU에서 서로 연결되고 차곡차곡 방법을 익혀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단단해진 자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iCanU 크리에이터 김익한 교수

<http://www.ican.co.kr>

유튜브채널 김교수의 세가지



김교수의 세가지
김익한 교수의 세상만사 가르쳐주는 지식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swZ-im6-XORrZatRoUvPYA>

1

죽기 전에 '잘했다'고 생각할만한 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한 것' 62.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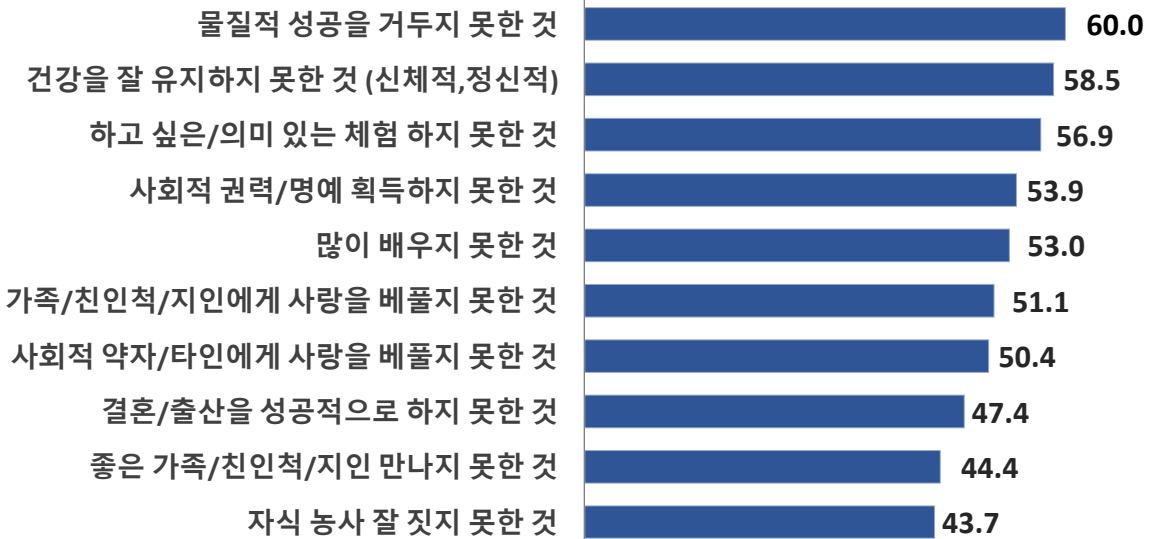
죽기 전에, '이건 잘했다' 라고 생각할만한 일을 꼽는다면?
(1,2,3순위 점수 환산, n=349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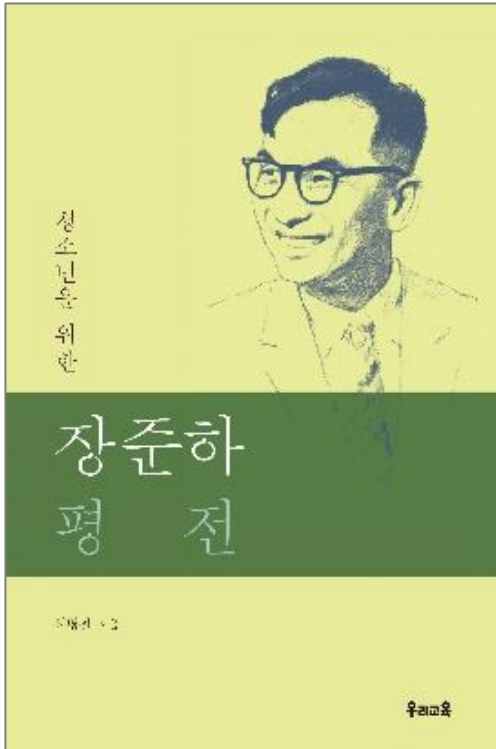
죽기 전에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할만한 일 '물질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60.0점

죽기 전에, '이건 후회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할만한 일을 꼽는다면?
(1,2,3순위 점수 환산, n=3491)



*자료출처: 두잇서베이,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 2018.1.31~2.8. 전국 14~99세 남녀 3491명

혼란했던 시대에도 민주주의를 실천한 시대정신을 읽다



청소년을 위한 장준하 평전

신명철 | 우리교육검동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오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정현중 시인이 노래했듯이, 한 사람의 일생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의 삶에는 개인사를 넘어서는 한 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독립과 건국의 시기에는 모든 게 부족했다. 국민 계몽이 중요한 시절이었다. 젊은 지식인들이 앞장섰고, 개인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일본 식민지였던 한반도가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군사 독재 정권의 폭력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장준하의 삶은 매 시기 선택과 결단이었다.

일본에 부역하면서 부를 누릴 것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뛰어들 것인가. 독재 정권 편에 서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살 것인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인가.

잔인한 세월이었지만 장준하가 목숨을 건 광복군으로, 훌륭한 언론인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던 지식인자, 반독재의 가장 앞에 선 실천가로 시대를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종횡무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던 자신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장준하는 일제 강점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반공사상에 철저했고 애국심으로 뭉친 보수 지식인이 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통일을 최고의 선으로 내세우기까지 끝없이 고민하며 변화, 발전하고 실천했다. 이 책은 그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발판으로 삼기 충분하다.*

우은주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채비특강] 삶의 끝에 입는 옷 ‘수의를 모든 것’

우리는 매일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통해 직업이나 삶의 지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 수만 번 옷을 갈아입지만 내 삶의 마지막에 입을 옷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이번 강좌를 통해 이 질문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시대에 따라 비단, 무명, 모시 등 다양한 재료로 수의를 지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수의는 삼베로 획일화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삼베는 거칠고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소재입니다. 낯선 천으로 수의를 지어 입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사회적협동조합송악동네사람들**의 사업단 김미아 팀장은 우리와 친근하고 자연에 가까운 광목 수의(壽衣)를 찾아냈습니다. 오래 수의 연구를 한 끝에 3년 전부터 광목 수의인 ‘날개옷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수의 변천사와 작은장례와 수의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교육 소개

- 일정: 2021년 10월 21일(목) 오후 7시~8시30분
- 대상: 조합원, 조합원 지인
- 교육 장소: 온라인+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신청: <https://bit.ly/3FF44ik>
- 문의: 02)722-9517

■ 강의 내용

- 수의 변천사
- 장례와 수의를 통해 본 작은 장례의 의미
- 수의 구매 실태와 행동 선호도, 사례 등
- 송악 동네 사람들과 광목 수의에 대하여

■ 강사소개

김미아 사회적협동조합송악동네사람들 날개옷 사업단 팀장

*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채비플랜’ 후기

9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채비플랜강좌가 있었습니다.

채비장례에 대한 설명과 준비사항을 알아보고, 추모식을 준비하기 위해 영상과 유품 준비하는 방법, 생애사와 추도사, 부고문자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 날은 모의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장례준비와 애도에 관한 것을 새롭게 알게될 뿐 아니라, 깊은 감동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추모식이 있는 채비장례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참석자 후기를 일부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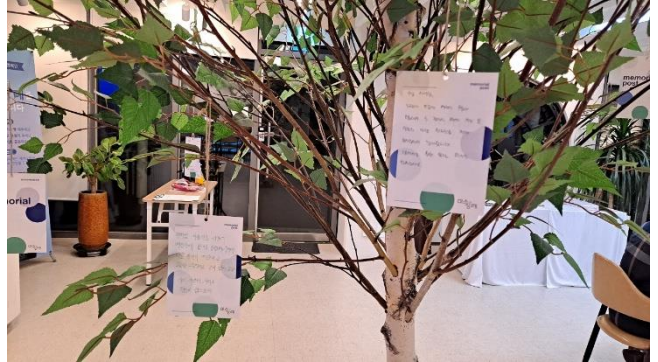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되게 감동이 있었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강의 들었던 모든 것을 이렇게 시연으로 하니까 훨씬 더 많이 와닿습니다.

... ‘박스 몇 개에다가 나의 기록물이든 아이들의 기록물이든 이제 버리지 말고 좀 잘 해서 넘겨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또 예 뭐랄까요. 마무리?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한이 없습니다.

- 이순임 조합원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이 준비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유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우리 자식들이 바로 부모님들이 저희 유산으로 남겨주신 유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으로 너무 충분하고 이런 생각으로 이 교육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릴 생각이에요. 감사해요

- 장양미 조합원



언젠가 사람을 떠난 건 알았는데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이렇게 오래 계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막 인터넷 뒤지다가 우연히 이제 여기를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오면서 이렇게 상담 받고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무척 위안을 받았어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가셔도 준비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위로가 돼요. 배워가는 거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 최진아 조합원

서울에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깔끔하고 품격이 있는 데가 있다니. 제가 이렇게 좋은 수업을 듣게 돼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경험한 프로그램들은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리면서 치유를 해주겠다고 해서 작위적이라는 생각에 불편했는데, 채비플랜은 처음 경험해 봤지만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잘해주셨어요.

너무 소중한 시간을 잘 겪어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진화 스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옷으로 이별을 준비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에서 만드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광목수의 '날개옷'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옷,
자연으로 돌아가는
광목수의는 어떠세요?

생의 마지막 순간,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칠고 예쁘지도 않고 평상시에 입지도 않는
삼베수의가 아닌 가장 친근하고 자연과 가장
가까운 면, 광목으로 만든 수의는 어떨까요?

광목은 목화에서 실을 추출하여 얇게 가공한
천으로 무형광 무색소로 생분해성이 높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소재로 자연과 가장 가깝습
니다.

송악동네 수의 '날개옷' 은 특별합니다.

원삼깃과 도포깃에 한땀한땀 손으로
직접 자수를 놓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
다운 옷으로 짓습니다.

또한 맞춤제작 방식으로 광목을 곱게 물들여
단 한 벌의 옷을 위한 원단을 따로 염색합니다.

선조들의 수의 전통을 이어 온전한 25가지의
구성품으로 정성을 다해 짓습니다.



#송악동네 날개옷은 이렇게 만듭니다



물들이기



패턴그리기



재단하기



수놓기



재봉하기



손바느질



다림질



포장



한겨레두레 조합원 특가

품 목	소비자가	조합원가	적립금 사용	현금지불
하얀 광목수의	980,000	850,000	500,000	350,000
물든 광목수의	1,150,000	1,000,000		500,000

*조합 적립금을 최대 50만 원 까지 사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수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입 절차



자연으로 돌아가는 광목수의 날개옷은
송악동네사람들이 함께 짓습니다.

미아공방 김미아

소중한 지인에게 **하나둘키트**를 선물해주세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올해 12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합원 부흥운동 ‘하나둘하나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건강한 장례문화가 정착하려면 더 많은 조합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상업적 장례를 상호부조의 장례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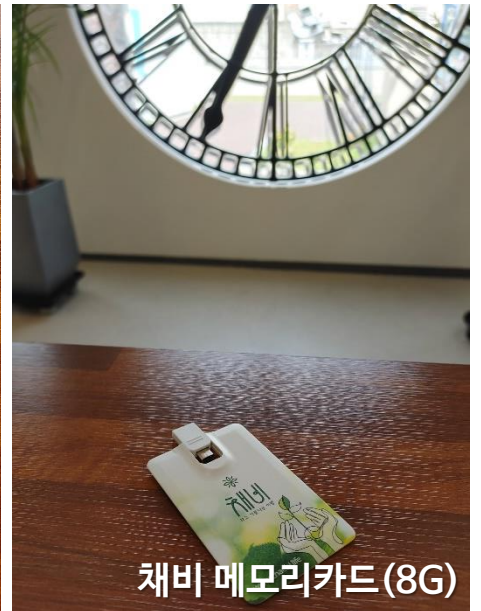
하나둘키트는 한겨레두레에 대한 소개와 장례에 대한 준비를 담았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우리 조합을 소개할 만한 지인에게 전달해주세요

비조합원이시라면, 저희 조합을 알기 위해 신청해주세요



하나둘 키트 구성품



채비 메모리카드 (8G)



하나둘키트 언박싱 소개영상
보러가기

하나둘키트 신청 CLICK

#작은장례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첫 번째 장례문화 캠페인으로
 ‘나도 #작은장례를 지지합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례문화의 시작에 우리 조합원부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지지서명하기

2021. 9월

원유갑 조합원 모친상
박정연 조합원 지인상
박은덕 조합원 사돈상
김정렬 조합원 빙부상
최윤성 조합원 부친상

이용규 조합원 모친상
심미경 조합원 배우자상
진신희 조합원 시부상
박치영 조합원 부친상

이정환 조합원 모친상
이병훈 조합원 빙부상
염갑수 조합원 모친상
차성호 조합원 부친상

2021. 8월

성한용 조합원 모친상
이미경 조합원 모친상
추병호 조합원 부친상

김일오 조합원 빙모상
김홍석 조합원 부친상

안동섭 조합원 모친상
정재권 조합원 사돈상

2021. 7월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최정서 조합원 모친상
최정우 조합원 누나상
한승동 조합원 모친상

이영미 조합원 시부상
정경진 조합원 모친상
오헨리 조합원 배우자상

이혜순 조합원 시부상
정승균 조합원 빙부상
박영철 조합원 모친상

2021. 6월

신종훈 조합원 부친상
박용규 조합원 본인상
박상훈 조합원 조모상
이유진 조합원 부친상
정형원 조합원 부친상

윤성주 조합원 모친상
이수연 조합원 시부상
김태형 조합원 빙부상
박종아 조합원 모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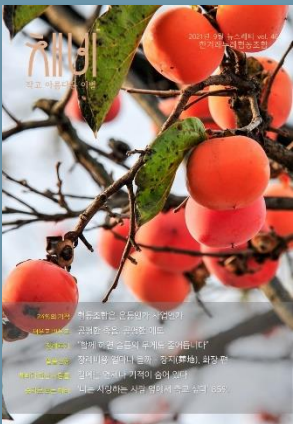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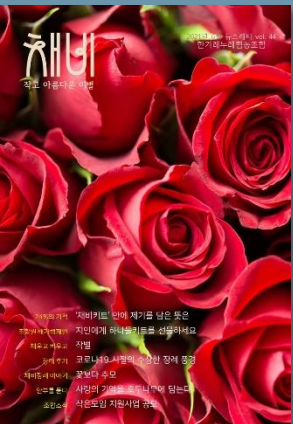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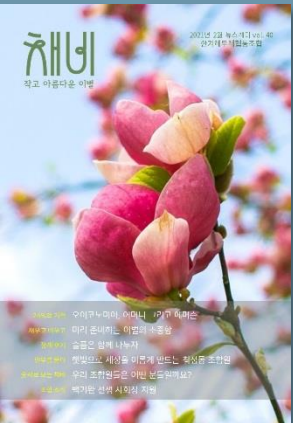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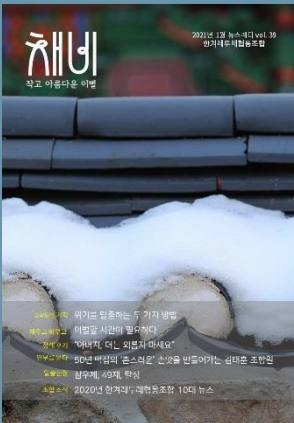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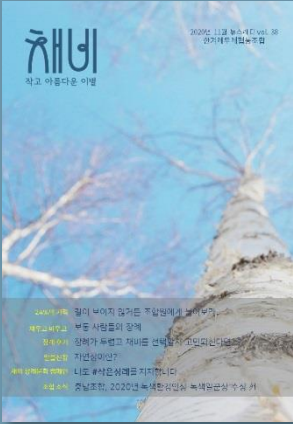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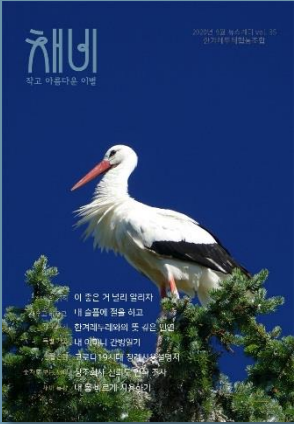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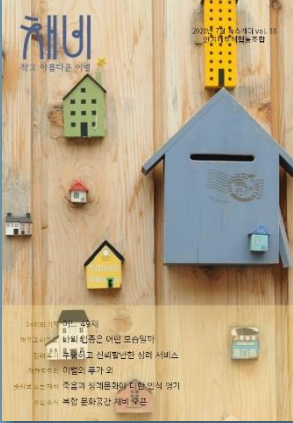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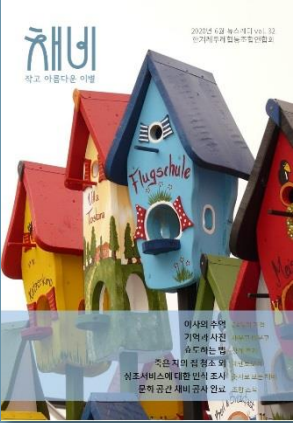
박승흡 조합원 빙부상
이형숙 조합원 시모상
이현우 조합원 빙모상
방형석 조합원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